

집에서 똑딱 氷 디저트...눈과 입이 시원해진다

FOOD & BEVERAGE

FavoriteD 성은용 셰프의 아이스크림 디저트 레시피

가나긴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가 시작됐다. 볼레지수는 올라가고 몸과 마음은 지쳐만 간다. 무더위에 밖에 나가기도 귀찮을 때, 가족들의 눈과 입을 사로 잡을 멋진 디저트로 홈카페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아이스크림만 있으면 간단한 레시피로 다양한 디저트를 즐길 수 있다. 베스킨라빈스의 아이스크림&디저트 전문 카페인 'Favorite D'의 성은용 셰프가 집에서도 카페 분위기를 내며 맛있고 시원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아이스크림 디저트 레시피를 추천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최고의 여름 디저트 빙수

쿠앤크 프린세스

오레오쿠키와 아이스크림을 활용한 '쿠앤크 프린세스'는 간편하게 만들 수 있으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보편적인 아이템이다. 취향에 따라 오레오 쿠키의 양만 조절하면 훌륭한 디저트 빙수로 재탄생된다.

▶재료: 얼음 적당량, 오레오쿠키 6~7개, 우유 50g, 연유 100g, 베스킨라빈스 쿠키앤크 아이스크림 75g

▶만드는 법

1. 우유와 연유를 잘 섞은 후 소스통에 담고 오레오쿠키를 잘게 부순다.
2. 얼음을 갈고 그릇에 담은 후 연유소스를 뿌려준다. (총 4~5회 반복)
3. 그릇의 2/3지점에서 오레오가루 2스푼을 넣고 나머지는 얼음과 연유소스로 채워준다.
4. 얼음 위에 오레오가루를 뿌려준 후, 오레오쿠키 1개를 4등분해 골고루 꽂아준다.
5. 쿠키앤크 아이스크림을 한 스푼 올려준다.

손님 접대에도 딱

오렌지 아이스 파르페

오렌지 아이스 파르페는 다소 손이 많이 가기는 하지만 손님 접대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고급 디저트다. 한 번 배워두면 제철 과일이나 좋아하는 과일로 대체하면 더욱 다양한 컵디저트를 만들 수 있다.

▶재료: 버터와플 3개, 오렌지 1개, 가당생크림 50g, 초코웨이퍼 1개, 산딸기 3개, 민트 1개, 베스킨라빈스 레인보우샤베트 아이스크림 50g

▶만드는 법

1. 오렌지는 껍질을 제거하여 손질하고, 생크림은 휘핑해서 비닐주머니에 담아놓는다.
2. 컵에 버터와플 2개를 잘게 부셔 넣는다.
3. 와플 위에 생크림을 얇게 짜준다.
4. 손질한 오렌지를 3등분으로 잘라 적당량을 넣은 후, 산딸기 1개를 잘라 골고루 넣어준다.
5. 다시 생크림을 얇게 짜준 후 버터와플 1개를 잘게 부셔 넣는다.
6. 아이스크림을 올리고 생크림, 초코웨이퍼, 오렌지, 산딸기, 민트를 이용해 장식한다.



아이스크림만 있으면 집에서도 카페가 부럽지 않은 디저트를 직접 만들 수 있다. 아이스크림&디저트 전문 카페인 'Favorite D'의 성은용 셰프가 혼자 즐겨도 좋고, 손님 접대용으로도 손색없는 디저트 레시피를 공개했다. 사진제공 | 베스킨라빈스

나만을 위한 달콤한 휴식

쇼트 케이크



혼자만의 티타임을 즐기거나 갑작스럽게 손님이 왔을 때,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 센스를 빛낼 수 있는 아이템이다. 커피와 함께하면 더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재료: 딸기 4~5개, 요거트 아이스크림 80g, 케이크 시트 小 1개, 시럽(설탕 20, 물 40), 민트 1개, 블루베리 2개, 산딸기 2개

▶만드는 법

1. 1인용 크기의 원형 틀을 준비하고 안쪽에 얇은 비닐을 두른다.
2. 통 안쪽에 슬라이스한 딸기를 놓고 요거트 아이스크림 80g을 채운다.
3. 요거트 아이스크림 위에 시럽을 바른 시트(높이 1cm 크기는 틀과 같게)를 놓고 손으로 누른다.
4. 위의 작업을 한 번 더 반복한다.
5. 설탕 찹시 위에 뒤집어 옮긴 후 틀을 뺀다.
6. 딸기, 민트, 블루베리, 산딸기 등을 이용해 장식한다.

스파게티 1000인분이 공짜 “화천으로 오세요”

오투기, 10년째 화천 토마토 홍보 앞장 토마토피아존 등 체험...가족여행에 딱

화천토마토축제, 2일부터 사흘간 개최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스파게티와 1000인분의 토마토 샌드위치 드시러 오세요.”
(주)오투기(대표이사 이강훈)가 10년째 후원하고 있는 ‘화천 토마토 축제’가 8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강원도 화천에서 열린다. ‘화천 토마토 축제’는 국내 제일의 토마토로 알려진 화악산 찰토마토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축제행사다.
‘화천 토마토 축제’는 전야제인 2일엔 풍물패와 주빈 노래자랑 등 주빈 화합의 장이 열리며 메인 행사는 3~4일 진행된다. 올 축제의 콘셉트는 물과 토마토의 환상적인 만남을 상징하는 ‘토마토피아’. 참가자들은 ‘토마토피아존’ ‘토마토 워터피아 존’ 등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다. 또 군부대 지역인 화천의 특색을 감안해 ‘밀리터리 체험존’도 운영한다.
올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주)오투기가 준비한 참가자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천인의 스파게티’ 이벤트와 1000명이 즐기는 ‘토마토 샌드위치’로 관광객들의 큰 관심으로 불려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주)오투기 홍보실 강구만 실장은 “단순한 지역 후원이 아닌 화천 토마토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업과 농업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천 봉어섬 및 생활체육공원에선 8월 11일까지 16일간 ‘물의 나라 화천 쪽배축제’도 열리고 있다. ‘화천 쪽배축제’에선 쪽배 콘테스트를 비롯해 물위의 자전거 일일편주, 북한강 위를 가로지르는 하늘 가르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그중 유쾌한 퍼즐들이 상상력으로 만든 ‘쪽배 콘테스트’는 단연 화제. 오는 3일에 맞을 올리며 올해엔 모두 21개 팀의 다양한 인간동력 창작선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화악산 토마토축제, 강성마을 5일장, DMG신양삼축제 등 다채로운 체험선물도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1688-3005) 원성열 기자

파게티’ 이벤트와 1000명이 즐기는 ‘토마토 샌드위치’로 관광객들의 큰 관심으로 불려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주)오투기 홍보실 강구만 실장은 “단순한 지역 후원이 아닌 화천 토마토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업과 농업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천 봉어섬 및 생활체육공원에선 8월 11일까지 16일간 ‘물의 나라 화천 쪽배축제’도 열리고 있다. ‘화천 쪽배축제’에선 쪽배 콘테스트를 비롯해 물위의 자전거 일일편주, 북한강 위를 가로지르는 하늘 가르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그중 유쾌한 퍼즐들이 상상력으로 만든 ‘쪽배 콘테스트’는 단연 화제. 오는 3일에 맞을 올리며 올해엔 모두 21개 팀의 다양한 인간동력 창작선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화악산 토마토축제, 강성마을 5일장, DMG신양삼축제 등 다채로운 체험선물도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1688-3005) 원성열 기자



(주)오투기는 8월2일 개막하는 ‘화천 토마토 축제’를 10년째 후원해 지자체와 상생발전을 꾀하고 있다. 특히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천인의 스파게티’ 이벤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축제 당시 관계자들이 ‘천인의 스파게티’를 요리하고 있다. 사진제공 | (주)오투기



보드카에 코코넛 향 ‘절묘’

디지털코리아(대표 조길수)가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최고급 보드카 ‘시락’에 코코넛 향을 가미한, ‘시락 코코넛 플레이버’를 선보였다. 시락은 곡류로 만드는 일반 보드카와 달리 프랑스산 포도를 원료로 사용하고, 고급 화이트 와인을 양조하는 방식으로 제조되는 최고급 보드카 제품이다. 700ml 용량으로 출시되며, 출고 가격은 4만원이다. 뉴시스

정관장 ‘홍삼콜’ 찬물 OK!

KGC인삼공사 정관장은 30일 서울 광화문 일민미술관 앞에서 찬물에도 바로 희석되는 스틱형 홍삼분말제품 ‘찬물에 잘 녹는 홍삼콜’ 출시 기념 행사를 열고 무료 시음행사를 실시했다. 홍삼콜(100포 1박스 기준, 8만5000원)은 KGC인삼공사만의 특허인 ES공법을 적용, 홍삼농축액 분말이 찬물에도 바로 희석돼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스틱형 홍삼 제품이다. 뉴시스



카카오게임 입점 문턱 ↓

무심사 입점제 도입·크로스 프로모션 허용

서비스 1년 만에 모바일 게임의 핵심 유통 플랫폼으로 떠오른 ‘카카오게임’이 변화를 시도한다. 우수게임에 한해 ‘무심사 입점제’를 도입하고, 다른 게임사 간 크로스 프로모션도 허용하기로 한 것.
카카오는 30일 ‘카카오게임’ 플랫폼에 8월 중 무심사 입점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한국과 일본, 미국의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 최고매출 및 무료인기 순위 상위 20위권 내에 7일 이상 타이틀을 올린 게임은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카카오게임’에 출시할 수 있다. ‘카카오게임’ 파트너라면, 누적 매출 1억 이상을 달성한 게임 하나 당 1회의 무심사 입점 기회를 준다.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카카오게임’ 1개의 누적 매출이 1억을 넘는 경우, 해당 게임사는 1년 내 차기 신규 게임 1개를 ‘카카오게임’ 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선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는 무심사 제도 부분 도입 외에도 중소 게임사들의 마케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추진 중이다. 서로 다른 게임사 간 카카오 게임의 크로스 프로모션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사들 “입점 문턱 너무 높다” 비판

이러한 정책 변화는 ‘카카오게임’이 모바일 게임 최대 유통경로로 자리 잡았지만, 모바일 게임사들의 불만 또한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30일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게임’은 1년 만에 부동의 국내 1위 모바일 게임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 매김했다. 플랫폼 누적 가입자는 3억명을 넘어섰으며, 카카오 게임을 하나 이상 설치한 이용자도 3000만명을 돌파했다. 7개 파트너의 10개 게임에서, 99개 파트너의 180개 게임으로 콘텐츠 양도 빠르게 늘었다.
반면 그에 따른 문제점도 생겨났다. 무엇보다 ‘입점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게임사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이번에 부분적 무심사 입점 제도를 도입한 것도 콘텐츠 제공업체들의 이러한 불만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조치다.
카카오는 앞으로도 파트너와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실제로 무심사 입점제도 도입 전에도 게임사 신청 무제한 제도와 게임 내 광고 플랫폼 등을 도입하기도 했다. 카카오게임사법본부 반승환 본부장은 “앞으로 입점심사 제도는 지속적으로 완화시켜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기존 파트너 외에도 역량 있는 개발사의 참여 기회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청정원 ‘스파이스 오리엔탈 드레싱’ 출시

대성(주) 청정원이 신제품 ‘스파이스 오리엔탈 드레싱(사진)’을 출시한다. ‘스파이스 오리엔탈 드레싱’은 깔끔한 오리엔탈 드레싱에 생 양파와 청양고추를 넣어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기호에 따라 기존의 오리엔탈 드레싱에 대해 느끼하다고 느꼈던 소비자들도 보다 산뜻하게 즐길 수 있다. 맛이 풍부해진만큼 음식과 조화의 폭도 넓어졌다. 일반 그린 샐러드나 해산물 샐러드에 잘 어울리고, BBQ 요리의 디핑 소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325g 용량에 가격은 3600원이다.

베스킨라빈스, 8월 이달의 맛 ‘알래스카 모카’ 선포

베스킨라빈스가 8월 ‘이달의 맛’ 신제품으로 알래스카의 아찔한 시원함을 그대로 담아낸 아이스크림 ‘알래스카 모카(사진)’를 출시한다. ‘알래스카 모카’는 진한 커피의 풍미가 그대로 담겨 있어 깔끔하고 시원하게 즐기기에 좋은 ‘모카 커피 소르베’와, 커피와 잘 어울리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달콤 쌉싸름한 맛이 매력적인 ‘에스프레소 초코 비트’가 어우러져 커피의 깊고 풍부한 맛과 아이스크림의 달콤하고 시원한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LGU+-서울시, 모바일 무료 충전 서비스 제공

LG유플러스는 서울특별시와 커뮤니티매핑센터, 프리비솔루션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모바일 무료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휴대용 충전기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하고, 시민이 사용 후 반납하는 방식이다. 한강 독섬 수영장 및 여의도·독섬 캠핑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넥슨-아프리카TV 협약...인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넥슨은 아프리카TV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기술제휴를 바탕으로 고퀄리티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채널링과 공동프로젝트 등 다양한 제휴사업을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펼쳐나갈 계획이다. 우선 8월 초 넥슨의 인기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마비노기 영웅전’에 인게임 스트리밍 아프리카TV 방송 서비스를 도입한다. 사용자는 게임 내에서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버튼 하나로 자신의 게임 플레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아프리카TV 내 전용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넥슨은 향후 적용 게임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